

최근 수원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무재해 10배수의 금자탑을 달성한 곳이 있다. 50여명의 근로자 중 16명만이 생산라인에 투입될 정도의 규모 면에서는 소규모이나 과감한 안전투자하는 안전의식에 있어서는 규모가 있다. 바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방이다.

여기서 해병대 출신답게 강인한 리더십으로, 때로는 자상한 맞춤형으로 주식회사 동방을 이끌고 있는 김희중 공장장을 만나 무재해 10배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주식회사 동방

## 수원공장 공장장 김희중



먼저 무재해 10배수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주)동방은 무엇을 생산하는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1977년에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우선하는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창립하였고,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국민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우수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개발

해 왔습니다.

2001년에는 국내 품질관리기준인 GMP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약업보국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 고객인 축산농가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개방특례조치로 위축되었을 때와 구제역 전염병에 의해 축산동물들이 무차별하게 도축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동방도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축산농가 수해복구 지원으로 의약품을 지원하였고, 북한에도 소독약 10만톤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실천으로 사회 속에 동방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는 오늘 무재해 10배수라는 영광을 가져다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했을 때의 소감은 어떠 하셨는지요.

제약업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무재해가 이루어진 것은 제조환경에 대한 안전 경영철학과 임직원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로 봅니다.

무재해를 시작한 것이 1992년 8월이고, 달성은 올해 1월인데 이는 무려 13년이 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산현장에서 작업공정상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로 모든 공정은 자동화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공정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의 고열을 발생하는 건열기사용 중 고온 멸균된 초차, 유리병 등에 의한 화상위험과 혼합기의 가동 및 혼합기의 내부청소 작업시 수작업으로 압착 등의 위험이 있으며, 무거운 원료, 제품의 적재 및 이동작업시 허리 및 발등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예지 활동과 정리·정돈에서 시작하는 안전활동으로 사소한 부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고, 복지와 안전을 각별히 신경쓰는 최고경영주인 이각모 대표님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관심이 있어 위험요소 Zero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밑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동방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고, 근로자가 다치면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은 나와 우리 동방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실천하면서, 안전의식이 이야기되고, 안전한 설비가 이야기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이 안전의식 함양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행동지침)을 실시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안전행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주인 이각모 사장님의 무재해 산업현장 구현과 직원의 복리후생, 안전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로 쾌적한 동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 재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리본 혼합기의 가동 및 내부청소 작업시 안전확보를 위해 원료투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청소작업이 있을 경우 이중으로 전원차단장치 및 시건장치와 열쇠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무재해 10배의 기틀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무재해 10배를 뛰어 넘어 계속되는 무재해 (주)동방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재해 운동을 더욱더 공고히 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안전의식의 고취,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신명나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동방은 무재해 사업장으로 한국 축산업 발전과 가축질병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최종덕 기자〉